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후보자명	황영철	기호	1	소속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용문~춘천 복선철도 홍천 경유				

홍천군민의 오랜 숙원이 홍천에 철도를 유치하는 일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에는 수서~용문간 복선철도가 상반기 착수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춘천~속초간 복선전철이 하반기 착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노선을 연결하는 용문~춘천간 복선전철은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SOC사업은 국가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의 기간 철도망 계획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의 철도망 구축계획 상에 있는 용문~춘천간 복선전철이 홍천을 경유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추가 검토대상 사업에서 최소한 하반기 착수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임기내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국도 6호선 선형개량사업 조기 완공 및 4차선 확장 추진

횡성의 국도6호선 서원~공근 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08년 사업진행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타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었던 사업입니다. 저는 4차선 확장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우선 2차로 선형개략사업으로 추진해 도로의 용량이 보강되면 자연스럽게 4차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보고 2차로 선형개량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할수 있도록 설계 변경과 착수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완공 이후에는 4차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4차로 확장 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순서를 지켜가며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비료값·사료값 인하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농업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 증가입니다.

저는 FTA 시대를 대비해 농촌이 경쟁력을 가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잘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비료값과 사료값 문제입니다.

저는 비료값과 사료값이 기준금액을 넘어 폭등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인상률 폭이 특정 비율(예를 들어 50%)을 넘을 경우 특별사료(비료)구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비료값,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하고 업체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일정부분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강원남부지역과 수도권과의 교통연계성이 좋은 횡성에 저온창고, 건조시설, 포장 및 가공시설을 갖춘 강워도 단위의 대규모 유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강원도 남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포장 및 가공유통을 담당하며 2차적으로 횡성 및 강원도내 여러 지역의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홍천에도 1차적으로 산지 유통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서석, 내촌, 내면 3개 농협의 기존 산지유통센터를 보완하는 한편 동면, 남면, 서홍천, 화촌, 홍천 농협 등조합 공동의 대규모 신규 연합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홍천군 산지유통체계를 마련하고 2차적으로 강원도 광역산지유통체계와의 연계를 꾀할 계획입니다. 홍천과 횡성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되면 획기적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기업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홍천과 횡성은 생명, 의료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추어 졌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동안 추진해오던 생명, 의료산업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년간 92개의 기업을 유치했던 만큼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재선의원으로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 지역이 지식경제부 고시상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해 나가겠습니다.